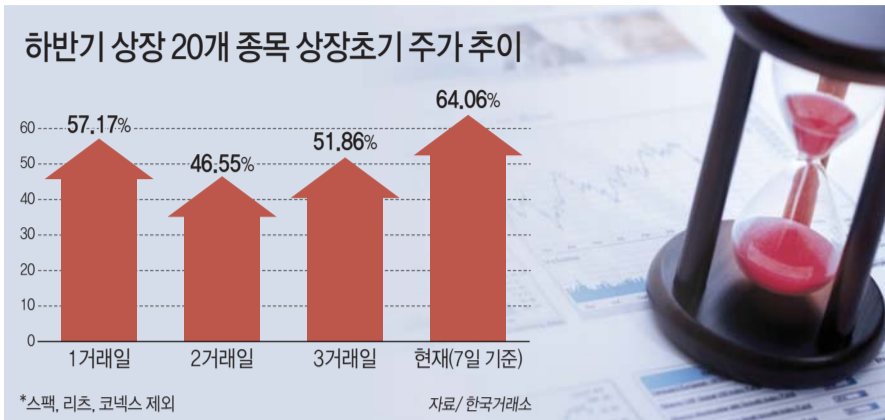


# 공모주 첫날 치고 빠지기?… IPO시장 단타족 투기판 우려

카캠 상장 앞두고 매도 시기 관심 목표주가 제시 증권사 아직 없어 차익만 노리는 일반투자자 많아져 18개 공모주 평균 경쟁률 1209대 1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시장 상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공모주를 배정받은 사람들의 매도 시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장 후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다 하락전환한 SK바이오팜의 주가 흐름을 의식하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상장 초기 매매 시기와 그에 따른 차익 여부에만 쏠리며 공모시장이 기업가치 평가의 장보단 사실상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 ◆ 첫날 팔면 수익률 57%?

포털 주식정보 종목 게시판 등에서 카카오게임즈 매도 시점에 관한 토론이 한창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3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주 청약에서 기록적인 흥행을 거뒀다. 청약률은 1424대 1을 기록했고, 역대 최다 수준인 58조5542억원의 증거금을 걷었다. 경쟁률에 따라 카카오게임즈는 청

약중거금 1억원으로 약 5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10일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

카카오게임즈 11주를 받았다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SK바이오팜 흐름을 살펴봤을 때 지금과 같은 기대감이라면 2연속 상승(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첫날 상한가)도 가능하다"라며 "상장을 마치면 3거래일 후 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의 예측대로 카카오게임즈가 파상할 경우 첫날 종가는 6만2400원이 된다. 최대 시초가 4만8000원(공모가 2만4000원의 2배)에 가격제한폭 30%를 적용한 것이다.

증권사들도 폭발적인 기업공개(IPO) 시장 수급 상황 탓에 선불리 목표주가를 내걸 꺼리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목표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는 아직 한 곳도 없다.

다만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수의 대작 신규게임 출시가 예정되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내년 이후 실적 성장성과 시장의 수급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가치대비 주가수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하반기 상장기업의 선례가 힌트가 될 수도 있다. 하반기 상장기업 20개(이하스팩·리츠·코넥스 제외)를 분석

한 결과 공모가 대비 첫날 종가 상승률은 57.17%로 상장 후 5거래일 중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20개 종목 중 상장 첫날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곳은 미투젠,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단 2개에 불과했다.

반면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전날 종가 기준 20개 종목의 공모가 대비 상승률은 64.06%에 달했다.

### ◆ '단타족' 많아 투기판 됐다는 우려도

공모주를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IPO 시장이 차익을 노리려는 투기판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가치를 반영한 가치투자로 접근하는 이들이 드물다는 것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들어 전날까지 일반인 대상 청약을 마친 18개 공모주의 평균 경쟁률은 1209대 1로 집계됐다. 종목 수로는 20개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지만 경쟁률로 살펴보면 그때(504대 1)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범위를 넓혀 2018년(493대 1·17곳)과 2017년(479대 1·11곳)까지 살펴봐도 경쟁이 치열해졌다.

상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쉬운 기

관투자자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달 기관 수요예측을 거친 7개 공모주의 평균 경쟁률은 1020대 1에 달했다. 기관 수요예측 월평균 경쟁률이 네 자리수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레이어 의료기기 제조업체 이루다는 역대 최고인 3040대 1을 기록했다.

공모주 인수 경쟁에서 뒤쳐진 기관 역시 단타 매매 성향이 짙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이례적으로 일반투자자들이 몰려 들고 있는 데다 공모주 펀드 활황 등으로 기관끼리의 경쟁도 거세져 기관 물량도 받기가 쉽지 않다"며 "공모시장 전체의 문제다. 신주로 치고 빠지기식 단타가 일반투자자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선 9월 IPO 시장의 예상 공모금액은 7000억~8000억원대, 예상 시가총액은 3조6000억~4조4000억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계 없이 IPO시장은 9월에도 지난 7, 8월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태하 기자 alvin@metroseoul.co.kr

## KIMCo·네이버·신테카바이오·AI센터

#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머리 맞댄다

공동 발전 위한 양해각서 체결 AI 활용 신약개발 재창출 등 각자 역량 극대화해 협력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국내 대표적인 IT·AI 기업이 뭉쳤다.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과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신테카바이오·AI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향후 이들 기관은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 및 지원 ▲AI 활용 신약개발 및 약물 재창출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한 정밀의료 산업 인프라 구축 ▲바이오·AI 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4개 기관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서 이를 활용, 코로나19 치료제 및 AI 활용 신약개발 등을 위해 각자의 장점과 역량을 극대화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4차 업무협약 체결에 동참한 KIMCo는 혁신의약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국형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56개 제약바이오기업들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공동 출자(70억5000만원)로 지난 8월 출범했다.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은 네이버의 IT 전문 기업으로 네이버, 라인, 스노우 등에 클라우드, 보안, 인터네트데이터센터(IDC) 등 IT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고 기업용 클라우드(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신테카바이오는 유전체 빅데이터에

기반한 AI기술 활용 신약개발회사로 최근 자체 AI 플랫폼으로 도출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에서 램데시비르보다 높은 치료효과를 확인하는 등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9년 산·학·연 연구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공동 설립한 AI센터는 ▲AI 활용 제고위한 교육·홍보 ▲신약개발 관련 데이터의 공유·활용 촉진 및 통합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4개 기관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은 연관 산업을 아우르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본격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감염병 치료제와 신약 개발,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농축산물 코너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 올 추석 차례상, 작년보다 최대 25% 비싸

4인 가족 차례상 비용 16.5% ↑ 배추 가격, 11주 연속 상승세

올해 연이은 기상 악재로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최대 25%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 물가를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7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6.5%(3만840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8일 밝혔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경우 40만4730원이 들어 지난해 추석보다 8만270원(24.7%)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받은 지난해 생산량 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수입량이 줄면서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지난해보다 훨씬 비싸졌다.

채소류는 날씨 영향으로 상품의 질

은 하락했지만 가격은 크게 올랐다. 특히 배추는 올해 11주 연속 가격이 상승하며 1포기 가격이 지난해 5000원에서 올해는 1만5000원으로 3배에 달했다.

지난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소고기는 여전히 작년 대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물가정보는 올 추석이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늦지만 봄철 이상 저온현상과 초여름의 이상 고온 현상, 여기에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장마와 잦은 태풍 등 기상 악재가 계속되면서 햇상품 출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와 작업량 부족도 고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연구원은 "올해는 유례없는 긴 장마에 과일, 채소, 곡식류 등의 수확이 늦어지는 만큼 상(上)품질의 재료를 구하려면 평소보다 늦게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원은미 기자 silvrbeauty@

## 특고 고용보험 당연가입… 개정안 국회 제출

(특수고용직)

정부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험료 특고·사업주 공동 부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대리운전기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담은 정부 법안이 8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11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담은 동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고, 올해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분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돼 오는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에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는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되고, 적용대상 특고 직종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14개 업종(골프장캐디·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방문판매원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 기자 hys@